

제1회 통일기원 솟대마당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은 오는 9월2일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에서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제1회 통일기원 솟대마당'을 개최한다.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단장 이희용)은 오는 9월2일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에서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제1회 통일기원 솟대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터민들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며 전통적인 놀이와 위안의 장을 마련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기민요와 풍물, 포천메나리가 공연에 나서고 새터민과 문화예술봉사단이 함께 하는 전통놀이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이 시민들과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경찰서, 포천신문, 포천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해 마련된다.

제9회 전국계간문예시 전주축제

포천 제3의 문학 출신 작가 참석



제9회 전국계간문예시 전주축제에 포천에 거주하는 제3의 문학 출신 작가들이 참석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로 했다.(사진은 김선진 시인이 시낭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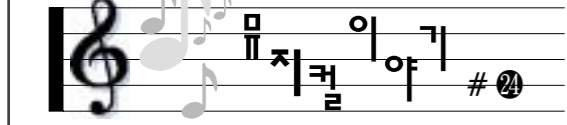
제9회 전국계간문예시 전주축제에 포천에 거주하는 제3의 문학 출신 작가들이 참석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문학의 역할과 출판현황을 주제로 문학세미나와 각 문예지 대표의 토론, 안도현 시인과 작가와의 대화,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계간문예시전주축제의회장은 문예연구 전정규 주간은 초청사를 통해 "예로부터 우리고장은 백제 최고가요 정음사와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을 낳은 예향이며 조선시대에는 완관본을 출간하여 한국 소설의 기반을 조성했던 소리의 고장"이라며 "일년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 회원사 여러분들의 화합과 협동, 그리고 상호교류를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선진 시인(포천에총 사무차장)은 제3의 문학을 대표해 시낭송을 하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 참석하고 돌아온 포천출신 작가들은 뒤돌아보고 제10회 전국계간문예시 인천축제에서는 각 문예지별로 부스를 만들어 참관객들에게 현재까지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연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1930년대 뮤지컬 개요-할리우드(Hollywood)

1927년에 세계 최초의 유성영화이며 뮤지컬 영화인 <재즈 싱어(Jazz Singer)>가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이후 노래는 뮤지컬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사랑을 받았다. 심지어 일반 극영화 속에서도 노래를 한 두곡이 불러질 정도로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1929년에 MGM 영화사에서 본격적인 뮤지컬(브로드웨이 멜로디)이 <브로드웨이 멜로디>(The Broadway Melody)가 "모두가 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all-talking, all-singing, all-dancing)는 포어를 내세워 대성공을 거두자 이를 모방한 아류들이 1929년에서부터 1930년까지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이 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할리우드 뮤지컬은 다음의 네 개의 타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백스테이지 뮤지컬(The Backstage Musical), 필름 리뷰(The Film Review), 오페레타(The Operetta), 캠퍼스 뮤지컬(The Campus Musical) 등이다.

백스테이지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며, 대중적인 오페라의 장법 혹은 그 스타일로 만든 오페레타, 그리고 필름 리뷰는 무대 리뷰를 영화로 만든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이며 캠퍼스 뮤지컬은 학교를 무대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이다. 캠퍼스 뮤지컬의 전형적인 작품은 <굿 뉴스(Good News, 1930)>였다. 주인공

이 일명 퀴카를 학교 댄스파티에 파트너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식축구경기에서 승리를 해야만 한다. 결국 마지막 경기종료 몇 초 전에 주인공이 대 역전을 시킴으로써 해서 퀴카의 사랑도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영화 이후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처음엔 관심을 갖고 관람했던 뮤지컬 영화 관객들도 지각없는 뮤지컬 아류들의 범람에 바로 흥미를 잃게 되었는데 관객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MGM, 이십세기 폭스사(20th Century Fox) 등 메이저 영화사들은 일시적으로 비슷한 작품 제작의 중단 선언했다. 더욱이 1930년대 초반까지 경제공황으로 인해 영화제작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없었다. 1932년에 역사 <러브 미 투나잇(Love Me Tonight, 1932)>이 개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흥작의 기간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 탁월한 안무가와 감독 그리고 재능있는 배우들이 등장하며 1933년부터는 뮤지컬 영화사 커다란 획을 그은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선두주자는 역시 안무가이며 감독인 버스비 버클리(Busby Berkeley, 1895~1976)였다. 버스비 버클리의 등장은 곧 영화 촬영기법의 발전과 뮤지컬 영화의 새로운 비전을 의미했다. <우피(Whoopee, 1930)>를 시작으로 버스비 버클리

는 기존의 획일적인 안무와 카메라 샷을 탈피하는 실험을 시작했는데 샷 공간, 움직임 그리고 오버헤드 샷(overhead shot) 등으로 정교하게 만든 뮤지컬들을 창조해냈다. 오늘날 수중발레와 마스게임을 연상케 하는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의 카메라 샷으로 만화경처럼 변화무쌍한 영상(kaleidoscopic on-screen performances)을 만들어낸 버스비 버클리는 뮤지컬의 선구자로 부르기엔 부족함이 없다. <42번가(42nd Street, 1933)>, <골드디거(Gold Diggers) 시리즈(33/ 35/ 37)>, 주디 갈랜드(Judy Garland)와 미키 루니(Mickey Rooney)가 주연한 <베이브스(Babes) 시리즈> 등이 유명하다.

샐리 템플(Shirley Temple, 1928~)은 1930년대를 장식한 미국 최고의 대중스타였다. 1933년에 이십세기 폭스사(20th Century Fox)와 계약을 맺은 이후 만년에 정치에 뛰어들어 미국대사를 역임할 때까지 대중들의 사랑과 논쟁을 수없이 불러일으켰던 아이스타였다. 샐리 템플 인형과 드레스 그리고 머리에 꽂는 나비매달리본 등이 상품화되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으며 사반면에 아이의 성애화(the sexualisation of child)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가 논쟁적인 그림(제목: Shirley Temple, The Youngest, Most Sacred Monster of the Cinema in Her Time)을 그릴 정도로 1930년대에 끼친 샐리템플의 영향은 엄청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9)

「담배」이야기

「담배」란 말은「토바코」란 말의 「변용어」이다.(Tobacco)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초년, 일본으로부터 전래(傳來)하여 퍼졌다. 식물학적으로 볼 때 가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草本)이며 잎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기호작물(嗜好作物)」이다. 원산지는 남미「페루」로부터 「멕시코」에 이르는 지대이다.

멕시코 옛 무덤에서 담배대가 발견되었으며 재래·야생종이 50여종이라 한다. 주로 남미에 재래·야생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미국의 담배나 쿠바의 여송연(如松煙)이 고급품을 자랑하는데 담배 객연자와 담배회 사와의 재판에서 담배회사가 패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담배

학부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흡시 담배를 피워 잘 못 가르친 가정, 또는 「가정교육이 잘 못된 집. 자식」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염려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 속에는「니코틴」이 들어 있는데 주로 「황산니코틴」을 만들어 「살충제(殺蟲劑)」로 쓰이는데 벌레를 잡는 농약이 담배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1929년 영국의 「라킨트」이 「페안의 원인으로서의 흡연」이란 논문이 나왔으며, 1952년 18만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담배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문과 금연법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1966년 담배갑에다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처음 붙였다.

韓國의 선비정신 · 75

한지(韓紙) ----- 유방백세(遺芳百世)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속종 때의 일이다. 속종이 한창 장희빈의 재색에 끌리어 조정 이 소란하고 나라 안의 민심이 불안할 때였다. 당시 정주의 한지(韓紙)가 충청감사로 있을 무렵에 전담의 일이 있어서 정주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감사가 온 까닭에 이 곳의 원들이 가장 아름다운 기생을 가려서 수청을 들게 하였다. 감도로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의 재색이 뛰어난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조일 정도였다. 이 고장의 원이 감사의 환심을 사서 노여움을 덜 생각으로 감도로 하여금 항상 그의 옆을 떠나지 않게 하였다.

감사가 정주에 이르러서 3일이 되던 날 밤의 일이다. 그가 매우 고단하여 깊이 잠이 들었는데 문득 발을 뻗다가 누구의 다리엔가 살아 닿았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절색인 감도의 몸이 다리가 닿은 것이었다.

이 때에 가장 감도가 말하기를, "감사 대감, 대감께서 여기에 오신 것은 나라 임금의 명을 받아 오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명을 맡아 감사를 잘 모시라고 명하지는 않았는데, 만일 감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장차 저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 하오니 하룻밤의 사랑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계집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감도가 스스로 아양을 떨면서 자기를 가까이하여 줄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한지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여기에 온 사람이고, 이 곳 원들의

을 받아 분함을 못 참는 것이다. 이 말에 한지는 깔깔 웃으면서, "애 감도야, 너의 재색이 못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감사가 원의 그릇된 정사를 고치려고 왔다가 수청드는 계집에 홀려서 정사가 바로잡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 더러운 소문이 두고두고 만년은 계속될 것이고, 너를 마음대로만 사랑하며 정사를 바로잡아 놓고 간다면, 정사에 대한 선정과 함께 네 마음과 같은 향기로운 기분이 백세는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섭섭히 생각지 말라." 하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정사에만 열중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기생을 가까이 있도록 하여도, 이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행동을 막지 못하면서 남의 상관이 되어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겠느냐?" 그는 항상 올바른 정사에만 힘을 써서 그의 향기로운 이름이 백세에 남도록 애를 쓰던 사람이었다.

한 지(韓紙) 1675년(숙종 1)~1720년(경종 1) 자는 석보(錫甫), 호는 월악(月嶽), 본관은 청주. 집의(執義) 태동(泰東)의 자. 공주 출신. 1694년(숙종 20) 생원시에 합격, 1706년 참봉으로 문과에 급제. 정언(正言), 지평(持平), 부교리(副校理) 1718년(숙종 44) 충청도 관찰사, 1720년(경종 1) 전라도 관찰사 재직 중 병사. 선정을 베풀었고 청백하였으므로 문명(文名)이 높았다.

숲과 꽃 테마 전시 9월20일까지

국립수목원, 수목원작가회 회원 작품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숲과 꽃을 테마로 한 2007수목원 작가전을 개최한다.

국립수목원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수목원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명체의 숲인 국립수목원 광릉숲은 온전한 자연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찾는 미술작가들에게는 자연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 체험의 장소이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전년도 나무의 주례전에 이어 릴레이 자연 환경테마 전시로 '광릉숲을 소재로 표현'이라는 주제로 작가들 자신의 감성과 작업방식으로 수목원의 자연환경 이미지 등을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하며 미술과 자연과의 교감으로 파생되는 환경예술의 이해 증진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수목원작가회는 지난 2005년도에 창립되면서 '숲과 생명'이란 주제로 첫 번째 전시회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 2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작품으로는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30점이며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포천 향토사 연구위원 간담회

포천문화원, 역점사업 및 다양한 사업 점검회의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이석구 소장,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사 연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선진관 유도희 포천시지부장으로 취임한 이운우 부소장에게 축하패를 증정하고 인사말을 통해 "포천지역은 선비의 고장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있기에 이를 적극 개발하여 뿌리깊은 전통으로 이어 나가고 우

리교장의 문헌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향토사로 제작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원들 등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 향토사연구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향토사료총람-승정원일기편』(가칭)발간사업에 대하여는 『국역 승정원일기-고종』내용에서 포천과 관련된 고종 44년종 고종10년까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료집을 제작 발간하여 12월 중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초대 漢詩

仲庚(중경)

柳鳳鉉 포천한시사 감사

頻頻霖雨又炎天(빈빈림우유염천) 或暫清風氣力宜(혹暫淸風氣力宜) (홍작청풍기력선) 자주주주 짐바네 내리고 여름의 더위 하늘인데 혹시 잠깐 동안 맑은 바람이 기력을 펴는 도다.

避暑乘車尋海水(피서승차심해수) 納涼策杖往林泉(납량책杖往林泉) (남량책杖왕림천) 더위를 피하여 차를 타고 해수욕장 찾아 가기도 하고 서늘함을 취하여 지팡이를 잡고 임천으로 가기도 하도다.

一心願伴沙洲鷺(일심원반사주루) 百計難呼木末蠅(백계난호목말선) 한 마음은 모래 물가에 서있는 황새를 동반하기를 원하고 백가지로 계교해도 나무 끝의 매미를 부르기 어려워라.

時值新秋三伏際(시치신추삼복계) 隣翁枵腹老鶯遷(린옹초창로앵천) 시기는 신추 삼복지경을 만났으니 이웃집 늙은이는 꼬꼬리가 늙어서 옮겨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도다.